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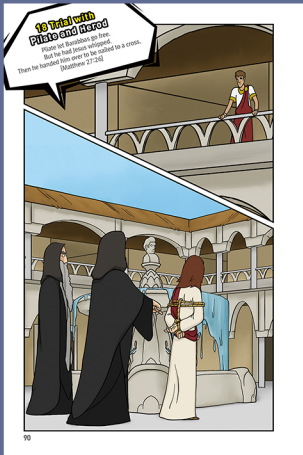
18th Story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Trial with Pilate and Herod

빌라도 갈릴리라고 했나? 그곳은 헤롯의 관할지역이 아닌가? 제대로 심문을
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헤롯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그 곳에 가실 때 헤롯은 흥분했어요. 헤롯왕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보고 싶었어요. 헤롯은 예수님께 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역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그를 고소할 꾀리들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헤롯과 그의 병사들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헤롯 지금 날 놀리고 있군!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 하지만 지금 내가 만난 예수 당신은.. 참 실망스럽군. 당신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저 평범한 사람이군. (놀리듯)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여봐라! 예수에게 그의 명성에 어울리는 옷을 주어라.

나레이션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는 병사들을 시켜 예수님께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계속 웃어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헤롯 이 자를 네게서 멀리 보내라! 이 자가 왜 내게로 보내졌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나레이션 또 다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보내졌어요. 이번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빌라도는 옷을 입고 있는 예수를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빌라도 보시오. 당신들이 이 자를 나에게 데려왔소. 당신들은 이 사람이, 사람들을 당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다고 했소. 난 당신들 앞에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고 당신들이 고소한 것들 중에서 그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소. 헤롯도 마찬가지로 그 또한 이 사람을 나에게 다시 돌려보냈소. 당신들도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줄 것이요.

나레이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불처럼 화를 냈고 또다시 모두가 소리를 질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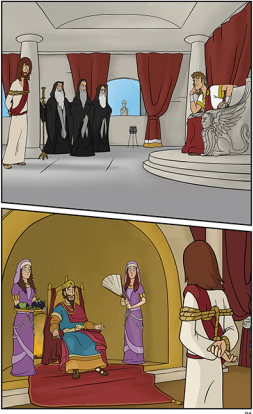
대제사장들, 장로들 안됩니다! 그를 죽이세요! 그는 죽어야 해요!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빌라도 알겠소! 알겠소! 조용하시오! 당신들도 아시다시피 유월절 동안에 주지사가 한 명의 수감자를 풀어주는 것이 관례요.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오? 살인자 바라바요?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예수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라바요!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원치 않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 조용하시오! 이보시오, 이리 오시오. 당신들은 정녕, 당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아닌 살인자를 놓아주길 바라는거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네, 그렇습니다!!



빌라도 그냥 하는 얘기군!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거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지? 내가 보기에 저 자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소. 당연히 죽음을 무릅쓸만한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거요?

나레이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매우 화가 났었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 앞에서 물그릇을 가져와 손을 씻었어요.

빌라도 난 이 사람의 죽음에 아무런 죄가 없소. 여러분 모두에게 책임이 있소.

대제사장들, 장로들 알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모든 벌을 아들이겠습니다!

나레이션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어요.

